세계화와 월드시티의 도시계획*

(Globalization and Urban Planning in World Cities)

Professor Peter Hall (The Bartlett School of Planning, UCL)
대담 · 정리 : 양도식 (영국도시건축연구소 UrbanPlasma(주) 소장

* 본 인터뷰는 저자의 '세계화와 월드시티 연구' 의 일환으로 Professor Peter Hall와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였다.

Q1 현재 세계화는 여러 분야에 영향을 주고 있고 있습니다. 특히 어바니즘 측면에서 볼 때 세계화가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화가 어바니즘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경제적 · 지리학적인 면에서 볼 때, 변화는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제적인 분업의 변화는 유럽과 북미 서구사회의 기존 경제활동인 제조업에 급속한 침체를 야기시켰습니다. 더 이상 중국과 인도와 같은 새로운 신흥산업국의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제조업과는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은 상당한 시간동안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는 1970년대 초기부터 서구사회의 제조산업의 침체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세계화도 새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세기 전에는 세계화나 제조업의 이동은 지금보다 그렇게 현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서구국가가 전통적인 제조업 기반의 경제 활동에 있어서는 침체를 겪었지만, 생산자 ·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산업과 같은 새로운 경제영역을 개척하고 수용하는 능력을 보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서구국가의 새로운 경제구조의 변화로의 전환에 대한 성패 여부는 바로 전통적인 제조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서비스 중심의 새로운 경제구조로 전이된 비율의 지표가 성공의 중요한 측정기준이 됩니다. 런던과 영국의 여러 도시들은 이런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율배반적인 양상을 보게 됩니다. 성공적인 변화를 이룬 많은 도시들은 제조산업이나 항구관련 산업의 침체로 인한 많은 양의 버려진 산업유휴지를 남겼습니다. 이 산업유휴지는 새로운 경제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세계화가 남긴 가장 극적인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지 영향만이 아니라,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세계경제구조의 급속한 변화는 우리가 여러 곳에서 보고 있는 도시의 근본적인 추진력이 되고 있습니다.

Q2 피터 테일러 교수의 월드시티 위계에 의하면 런던은 뉴욕, 도쿄와 함께 항상 알파 월드시티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피터 테일러 교수의 월드시티 분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뉴욕, 런던, 도쿄 이 세 개의 도시들은, 여기에 가끔씩 파리를 포함해서 월드시티 분류는 피터 테일러 외에도 다른 월드시티 관련 연구를 하는 학자들에 의해 자주 소개됩니다. 러프버러(Loughborough) 대학에 있는 GaWC(Globalization and World Cities) 단체의 피터 테일러 교수가 월드시티 관련 내용을 가장 잘 정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런던과 뉴욕을 가장 높은 월드시티 레벨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의 연구는 아주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서비스 경제의 통제와 명령의 관점에서 세계화를 조직적인 분석의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은행, 보험 회사들과 같은 다국적 기업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위해 사용한 공식은 복잡해 보입니다. 이 분석은 본질적으로 기업과 기관 정보의 위계적 흐름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안되었습니다. 피터 테일러의 분석은 본질적으로 세계의 많은 다른 도시들보다 런던과 뉴욕은 세계의 많은 지역을 통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월드시티의 위계를 측정하는데 있어 완벽한 수단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피터 테일러의 방법은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터 테일러의 월드시티 위계에 의하면 런던과 뉴욕은 최고 위계의 월드시티이며 다음 위계의 월드시티에는 그리 많은 도시들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20여 개의 도시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도시들은 서유럽, 북아메리카의 서부와 동부 해안도시 그리고 시드니를 포함한 극동아시아나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제조업 보다는 높은 비율의 서비스 기반의 새로운 경제가 위치한 지역들입니다. 이 말은 즉, 서비스 산업은 세계의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Q3 교수님은 약 40년 전에 월드시티에 대한 책을 저술하고 논의를 하였습니다. 저술 당시의 런던과 현재의 월드시티 런던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40년 전, 월드시티에 관한 저의 생각은 그렇게 잘 전개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월드시티에 대한 이론이 미숙하고 제대로 성숙하게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현재와는 달리 피터 테일러가 말하는 월드시티성(world cityness)을 측정하는 양적수단(quantitative measures) 을 가지고 있지도 못했습니다. 당시 우리는 아주 직관적인 판단력을 바탕으로 월

드시티를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래전에 말했듯이 새로운 경제의 통제와 명령하는 도시의 등장에 대한 그 직관력이 제대로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 제가 현재와 과거의 런던을 비교한다면, 비록 정확한 평가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과거 런던의 위상을 현재에도 유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그 위상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현재에는 피터 테일러가 말하는 월드시티 위계를 측정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과거 40년 전, 그리고 20년 전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저의 느낌은 런던은 뉴욕과 함께 월드시티의 위상이 계속 높아졌습니다. 반면에, 파리와 도쿄는 다소 그 위상을 잃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세계화가 은행과 같은 기관이 어느 때 보다 더 국제화 될수 있도록 만든 금융자유화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HSBC(Hong Kong Shanghai Bank of China) 은행은 상하이에서 설립되었지만 1949년 중앙 본사를 홍콩으로 이전한 후 주요 국제은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콩보다 런던에 더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미국 은행과 같은 많은 해외은행들이 런던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런던이 뉴욕보다 헤지펀드와 같은 금융은 뉴욕보다 더 활성화되었다는 증거들도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영국의 마가렛 대처가 1986년 실행한 금융자유화(Big Bang) 20주년을 축하하는 많은 관련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금융자유화는 영국의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모든 비평가들이 이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유화는 시티 오브 런던(City of London) 지역을 더욱 더 경쟁력 있는 장소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해외자본이 유입되었고 외국은행들이 지사를 런던에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전 방식과 조직적이지 못한 영국의 금융구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후 런던은 지난 20년 동안 더욱더 국제적인 금융서비스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Q4 러시아 경제학자인 니콜라이 콘드라티예프(Nicolai Kondratieff)는 자본주의 경제의 사이클을 언급하였습니다. 이 혁신 사이클은 도시의 성장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저의 개인적 관심사는 이러한 경제적 성장과 침체 그리고 혁신 사이클의 도시와의 연관성입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슘페터(Shumpeter)는 'Great Business Cycle'이란 책을 쓴 후 1942년 그를 유명하게 만든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저서를 완성하였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유명한 공론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자본주의는 창조적인 파괴에 기초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많이 인용되는 구입니다. 저는 이 말에 아주 심오한 뭔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는 다이나믹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새로운 형태의 경제 조직을 만드는 반면에 다른 조직을 파괴시킵니다. 창조적인 파괴과정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엄청난 지리학적인 영향을 줍니다. 슘페터가 이미 보여주었듯이 창조적인 파괴과정은 특정한 나라가 경제적인 주도권을 잡도록 합니다.

영국은 첫 번째와 두 번째 Kondratieff Wave* 동안 경제적인 리더를 해왔습니다. 세 번째 Kondratieff Wave 동안은 독일과 미국은 영국과 경쟁을 했습니다. 네 번째 Kondratieff Wave에서는 미국이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이들 도시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독일과 혹은 디트로이트는 Kondratieff Wave를 일으킨 도시와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샌프란시스코의 실리콘 밸리는 제4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각각의 변화의 물결의 단계는 도시를 침체하게 하였습니다. 저는 제5의 물결도 도시의 침체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5의 물결은 언제 시작될지 모릅니다.

맨쉬의 혁신주기에 의하면 1881년에 혁신이 있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ondratieff의 새로운 혁신 물결이 1897년에 이어집니다. 그리고 4번째 Kondrafieff의 혁신 물결을 야기시킨 1935년 혁신물결이 일어납니다.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에서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Kondratieff의 제4의 물결은 1952년 혹은 1954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기는 혁신이 최 정점에 달한 후 17년에서 19년 사이의 기간과 비슷합니다.

멘쉬는 그의 책에서 다음 혁신의 물결은 1984년에 최정점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

* 19세기 초와 20세기 초반의 경제현상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러시아의 경제학자인 니콜라이 콘드라티에프(Nicolai Kondratieff, 1892-1938)가 주장한 경제사이클. 이를 바탕으로 그는 경제가 성장과 침체(expansion and contraction)가 평균 50년을 주기로 (1772-1850, 1850-1896, 1896-1940) 반복된다고 주장함. 이 배경에는 영국과 독일 경제의 임금, 원료, 생산과 소비, 수출과 수입 등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였다.

이 말은 Kondratieff의 제 4의 물결이 지금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1984년 이라고 말 할 수는 없습니다. 약 5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혹자는 근본적인 웹 사이트의 등장과 함께 1989년에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 다음 Kondratieff Wave은 시간이 다소 더 걸릴 것이라 예상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 글을 적은 적이 있습니다. 2007년과 2011년 사이에 저는 세계경제가 웹사이트의 등장과 혁신을 통해 성장했다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혁신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가정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사실이 아주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은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류의 학자들은 경제의 성장과 쇠퇴에 대한 다른 설명의 메커니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이 세계경제에 등장하고 뭔가 특별한 것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중국은 1970년대에는 세계경제로부터 격리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구소련의 붕괴 이후 중국은 세계경제의 중심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이후 세계화를 가속화시켰습니다. 이는 유럽의 공산주의의 붕괴와 중국공산당의 혁신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국공산당의 혁신은 세계경제의 확장에 아주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의 경제적 성장을 이루게 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주 독특한 부분이며 이는 마치 19세기의 세계로 확장되는 경제현상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Q5 세계화는 경제와 도시의 성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는 국가간의 경제적 불균형 도시 내의 극빈곤층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슘페터가 말하는 '창조적인 파괴'의 과정은 역설적인 면도 있습니다. 어느 경제학자는 1960년대에 국가나 도시의 급속한 경제 성장은 '소득격차'와 연관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년간 중국에서 벌어진 일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소득의 격차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광역지역과 도시간의 차이입니다. 상하이와 중국 서부지역의 소득격차는 1970년대 보다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상하이나 런던과 같은 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격차입니다. 고도의 경제성장은 상류층의 소득을 향상시켰고 이에 대해서는 많은 통계적 증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소득 계층은 더 많은 소득을 내고 다른 계층과의 격차를 더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런던의 경우, 주택시장에 영향을 주는 고소득층이 있습니다. 많은 고소득 상류층에 비해 소규모의 가난한 저소득층이 있습니다. 이 가난한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새로운 이민자들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이민자는 이미 뿌리 깊게 정착한 새로운 경제환경에 적응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런던만이 아니라 유럽의 모든 도시에서 볼 수 있으며 런던의 경우에는 더욱더 명확히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Q6 월드시티 런던도 세계화의 문제에 있어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런던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런던 시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현안은 사회복지혜택에 영구적으로 의존하는 계층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회복지혜택은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중요한 정책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빌 클린턴이 미국에서 이 정책을 시도하였고 다소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영국수상인 토니블레어가 수상이 된 후 시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영국과 미국은 영구적으로 사회복지혜택을 통해 가난한 저소득층 문제 해결을 시도하였습니다. 그 방법으로 이 저소득층이 최소한의 임금을 받더라도 일할 수 있도록 종용하거나 일을 가질 경우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펴왔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아주 복잡한 일련의 정책들입니다.

Q7 지속가능한 월드시티 런던을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현안인 빈부격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미 말했듯이 성공적인 성장을 이루는 도시에 부자는 더욱 더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 주택시장의 불안정은 많은 사람들을 위한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부자들은 원하면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많은 부동산을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런던에 아파트를 가지면서 농촌지역에도 주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두 개의 주거지를 가지고 사는 생활패턴은 부자들에게 있어 일반적입니다. 부부 중 한명은 도시 외곽에 살면서 거기서 일자리를 구하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동안, 다른 한명은 시내에서 일하며 주말에 가족들과 재회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주택 하나를 간신히 소유하는 저소득층에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저소득층은 조건이 좋지 않은 열악한 주택을 살거나 아니면 그들의 일자리로부터 떨어진 아주 먼 곳에 살아야 합니다. 이는 일자리로의 이동시간과 비용과 관련하여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Q8 월드시티 런던의 삶의 질과 관련해서 주택은 아주 중요하게 런던플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런던플랜에 나타난 주택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십시오.

삶의 질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택부족을 막기 위해 주택의 밀도를 높인다면 이것은 삶의 질과 관련하여 또 다른 어려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공공의 공간을 잃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도시가 가족중심적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고밀도 주택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기 위해서 높은 수준의 사회적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밀도 주택은 부정적인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성공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저는 런던시장 켄 리빙스턴이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런던시장은 새로운 주택을 오픈스페이스에 조성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런던플랜을 통해서 고밀도의 건물을 기존의 주거지역에 조성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들의 변화주기는 빠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쉽게 실행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 이상 아주 천천히 변합니다. 어떤 건물은 아주 오래되어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 철거는 더욱 더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고밀도 주택이 이용가능한 토지가 있는 이전의 산업지역이나 항구 혹은 독 지역에 조성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Q9 하지만, 현재 런던의 부족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의 확장과 외곽타운 건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무분별한 도시의 팽창(sprawl)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잉글랜드의 남부 지역은 분산되었지만 집중된 지역입니다. 넓은 규모에서는 분산되어 있지만 지역(local)적 규모에서는 많은 도시와 타운을 중심으로 집중된 형태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국이 아주 잘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처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더 넓은 규모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교통과 연결된 인구 10만에서 40만 사이의 중소규모의 도시를 런던 외곽에 만들 수 있습니다.

Q10 런던플랜은 런던을 런던답게 만드는 것은 다양성임을 강조하며 다양한 커뮤니티 조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민정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민자의 유입을 괜찮다고 말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런던의 경험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이민자의 부류에 따라 그 성공의 비율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영국 학교의 시스템 내에서 어린이들의 활동발달 상황을 보면 중국 학생들이 가장 높은

비율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장 성공적인 이민자 그룹은 인도 이민자 들입니다. 그러나 방글라데시 이민자 부류는 인도와 같은 대륙에 있지만 성공적이지 못합니다. 이민자들의 성공은 아마도 그 지역의 문화 여건에 많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아주 복잡한 주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성공적인 월드시티를 포함해서 성공적인 도시는 이민자들에게 매력적입니다. 젊고 활동적이며, 지적인 이민자들이 성공적인 도시에 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렇지 못한 경우 이민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민을 통해 경제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인간자본이 유입됩니다. 이것은 뉴욕과 같은 도시처럼 런던의 가장 큰 자산이 되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민자를 수용하여 정착하는 초기 과정에 문제점은 있습니다. 문제의 대부분은 이민자들이 새로운 문화를 얼마나 체득하는가의 정도와 비례합니다. 백 년 전 뉴욕은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높은 비율의 이민자를 수용했습니다. 최근에는 런던이 그 경우입니다. 런던의 이민율은 백 년 전 뉴욕의 비율에 준한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뉴욕의 경우에는 대

부분의 이민자들이 주로 유럽에서 이주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동일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런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런던의 이민자의 경우에는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민자들에게 다소 어려움을 줄 것입니다.

현재 런던에 있는 무슬림 인구에 대해서 논의 하고 싶습니다. 이 무슬림 인구들이 새로운 문화에의 적응과 관련하여 심각성의 정도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젊은이들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런던과 유럽의 대부분의 무슬림 인구들은 친족들과 함께 협조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무슬림 이민 2세대들이 학교의 교육시스템을 통해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1세대 이민자들이 모두가 새로운 문화에 적응 할 수 없지만 새로운 문화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육시스템을 통해 제2세대들은 그 사회의 주요 흐름에 쉽게 흡수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런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Q11 사무엘 헌팅턴의 그의 저서인 '문명의 충돌'을 통해 다소 다양한 문화와 인종적 배경을 가진 커뮤니티간의 부정적인 내용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팅턴의 저서는 많은 사람들의 비평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문명간의 충돌과 문명간의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헌팅턴의 주장을 받아 들일 것이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로간의 다른 문화를 용인하는 과정에서 부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Q12 한 나라의 이민정책은 그 사회의 개방정도와 많은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리처드 플로리다(Richard Florida)는 창조계급관련 내용을 언급하면서 '보헤미안 지표'(Bohemian Indicator)를 통해 단편적이지만 그 사회의 개방정도를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리처드 플로리다의 책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의 책은 피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그가 사용한 통계적 수치는 빈약합니다. 하지만 창조적인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점에서는 아직 성공적인 책입니다. 저의 생각에는 창조적인 도시를 만드는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보다 더 복잡합니다. 또한 그가 제시한 통계적 연관성은 다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창조적인 도시를 만드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오랜 시간 동안 창조적인 도시가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역동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13 감사합니다.

Q1 Globalization is having influence on various sectors. Looking from urbanism perspective, globalization is showing great influence. Please tell us about the influence globalization is having on urbanism.

I think the transformation works, through what I would call economic geography, in particular the changing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ur, because it leads to rapid decline of existing economic activities, especially manufacturing in western cities, by which I mean European and North American cities. They no longer prove to be competitive against the newly industrialized cities in countries like China and India. This process has been going on for quite a considerable time now, and it has led to major losses of manufacturing industry in the West, beginning in the 1970s. Globalization itself is not new, although it's probably more intensive now than it was a hundred years ago. However, what's interesting is that despite the losses in certain kinds of old economic activities, many western cities have shown the ability to adapt to new economic areas, such as producer-consumer services. I'd go as far as to say that success, or lack of

success of the cities in the West and perhaps increasingly in other countries, can be measured by almost an index of the rate of transition from old economy to the new economy, whatever that new economy is. In cities that are making that transition successfully, like London and other British cities, you see a paradox. Large areas of abandoned land left behind from the manufacturing industry or perhaps from port activities, in or around the central business district, can be used for the new economy. That for me is the most dramatic example of the impact of globalization. It's not the only impact, but I think this rapid transition of the economy from the old to the new is a fundamental driver and the way we see cities, wherever we see them.

Q2 According to Professor Peter Taylor's 'Hierarchy of World Cities', London is always at Alpha World City status, alongside New York and Tokyo. What's your view on Professor Taylor's classification?

These three cities, and occasionally Paris, although Paris is doubtful, do appear rather regularly, not only in Peter Hill's categorization but in many others. The most definitive for me is Peter Taylor of the GaWC (Globalization and World Cities) group in University of Loughborough. He actually puts London and New York at the top of the hierarchy. His work is interesting, as it's based on a very systematic attempt to measure globalization in terms of command and control in these new economies, especially in multi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banks and insurance companies. The formula used is a complex one, but it's essentially designed to try to provide a proxy for the flows of information within such organizations, hierarchically. And it essentially says London and New York has a much deeper control span over a larger part of the world, than any other cities. Lacking any better means of measuring hierarchy, I think this method is probably the single best measure. One can look at those cities, and look at the next range of cities, and we will find out that there is a limited number of

these top cities, perhaps around 20, and also that they're very localized into three areas of the world, that is, Western Europe, East and West Coasts of North America and East Asia, and also perhaps Sydney. This essentially is where the new economy is very localized, to a much higher degree than the manufacturing economy, which says that the new economy involves concentration, that it coheres to a very confined regions of the world.

Q3 Around 40 years ago, you wrote a book on and discussed about World Cities. What differences do you see on present world city London and London at the time of writing the book?

40 years ago, my ideas about this were much less well-developed. They were much cruder and rougher. And we didn't have much quantitative measures, of what Peter Taylor called the 'world cityness' then, as we do now. We did have very crude intuitions, but we didn't tell of any ways of establishing these intuitions. The intuitions we brought were correct, as even then I told of command and control of these new economies. If I compare London then and now, it just kept its position in the hierarchy, and it just kept advancing, although we don't have very accurate measures for that. We do have the Peter Taylor method, and we can take it back 40 years or 20 years, but the general impression is that London has increased its lead at the top, together perhaps with New York, whereas cities like Paris and Tokyo has lost it to some degrees. Among the reasons for this are globalization and also the deregulation of financial services, which have allowed top financial services such as banks to become much more international than they were. For example, HSBC(Hong Kong Shanghai Bank of China) started in Shanghai, but moved its central HQ to Hong Kong in 1949, and became a major international bank. It probably is more established in London than in Hong Kong. Suddenly many overseas banks, including American banks, have started

to operate in London. There is some evidence that London is gaining on New York in certain important aspects, such as hedge funds. There has been a series of articles in the last two weeks celebrating the 20th anniversary of the Big Bang, the event in 1986, in which Margaret Thatcher deregulated financial services. It was enormously influential. Every informed commentator confirms that fact. It transformed the City of London, making it a much more competitive place. It caused foreign capital to pour in, foreign banks to establish themselves in London, and basically push out the old-fashioned, rather poorly organised British financial services. As of this London has become a much more 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 city in the last 20 years.

Q4 The Russian economist Nicolai Kondratieff mentioned a cycle of capitalist economy. This renovative cycle has also greatly influenced growth of cities. I would personally like to know the relation between the economic growth and stagnation and this renovative cycle. Could you explain about the relationship?

Schumpeter, after he wrote the 'Great Business Cycles' book, wrote a book in 1942 which made him much more famous called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And it's in this book that he made a famous praise that capitalism was based on creative destruction, which has been quoted very often. I think by that he meant something very profound, that capitalism is a dynamic process, and in creating new industries, new forms of economic organizations, it destroys others. And that has a very tremendous geographical impact, as we were talking of earlier. It often leads, and Schumpeter has already shown, to one country taking an economic lead. The UK has been the economic leader in the first two Kondratieff, but Germany was already beginning to compete. By the third Kondratieff, Germany and the US competed very much with Britain, and by the fourth Kondratieff, America was in a complete lead. And obviously this has a great impact on the cities in these countries. So you could say a

city like Berlin or Detroit was a creation of the third Kondratieff wave, and San Francisco with Silicon Valley a creation of the fourth wave. But each wave let many cities decline, as they represented the old activities. And I would imagine that the same would apply for the fifth Kondratieff. And the timetable suggests that the fifth Kondratieff could be starting any minute now.

The Mensch timetable suggests there was an innovation going on in 1881, which was followed by new Kondratieff beginning in 1897, and there was another innovation in 1935, which led to a fourth Kondratieff wave, which various authorities date differently. But many would suggest 1954, perhaps 1952. That is a similar period of 17 to 19 years after the innovation peak. Now, Mensch forecasts in his book that the next innovation wave would peak at 1984, which would mean the next Kondratieff would begin about now. It's not definitely 1984, as there is a margin of error of 5 years to both sides. Some people would say that the most fundamental breakthrough came in 1989, with the World Wide Web. In which case the next Kondratieff may take a little more time. I myself, writing about it earlier, varied between 2007 and 2011, but I think there already is some evidence that there is a growth in the world economy, especially associated with the innovations from the World Wide Web. So something is beginning to happen. It is however greatly complicated by the fact that people are not agreeing to this hypothesis. It has been attacked by many academics. And other academics have given different explanations for the economic booms and depressions. What we do know at the present time is that something very special has been happening, which is the entry of China into the world economy. It was very largely sealed from the world economy, around the 1970s. Following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in the 1990s, they've joined the world economy, and there has been an acceleration of globalization since the 1980s, associated with the collapse of communism in Europe and the transformation of communism in China, which has created extraordinary conditions in expanding the world's economy. I think this is the reason why we've had such a long

period of economic growth. This may be a very special factor, maybe similar to the opening up of the world in the 19th century.

Q5 Globalisation is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growth of economy and cities. But it also has problems, such as economic imbalance between countries and extreme poverty within the cities. What do you think about these issues?

Part of creative destruction is that it creates a paradox. An economist said in the 1960s, that rapid development in a nation or city is associated with income disparity. For instance, what's happening in China in the last 20 years is a very interesting example. Income disparity occurs in two ways. First of all, it occurs between the regions and cities. The difference between Shanghai and the western provinces are much greater than they were in the 1970s. The other is within the city. In cities like Shanghai and London, rapid growth increases the income at the top. There are statistical evidences that very clearly states so. The high-income people gain more income and are pulling it away from rest of the population. So in London you have the group of super-rich, which has a distorting effect on the housing market. You have a relative large group of comfortably well-off people, but also have a small group at the bottom, who're relatively very poor. Some of these poor are relatively new immigrants, who are rising. More problematic is that some of them are over-established groups, who're sort of stuck. They're not successfully making the transition into the new economy. You can see this paradox in every European city, not just London, but it's quite observable in London.

Q6 World city London is no different on these issues. What steps is London taking to tackle these problems?

It's doing its best, but there are issues that are very, very difficult, because you do get the growth of a class, who can become permanently dependent on welfare benefits. Welfare benefit is a very important policy to deal with this. It's interesting that Bill Clinton tried to do this, to some success, in the US. His model was followed by Tony Blair, when he came to office. So both the American and British governments have tried to deal with this problem, by pushing this class into the labour force, by using combination of measures, which involves withdrawing welfare and also providing incentives to enter the labour force, even at low minimum wages. But it is a very complex set of policies.

Q7 Please tell us about gap between the rich and poor, the most important issue in creating a sustainable world city London.

I think this is a serious problem, because as I said, in successful cities, the rich will become richer, and the quality of life diminishing for many people, especially through distortions in the property market. The rich can always buy their way out of this, because many of them will own multiple properties. They can have an apartment in London and live in the countryside. They will have the best of all possible worlds. And this approach of living in two different places will be more commonplace, because what the very rich do today, the less rich will do tomorrow. They'll tell themselves, 'look it's horrible to live in this place. As we have to live here for a part of the week, we can live in the countryside for the other part'. So you get a pattern, which the demographers already described as living together apart. That is if one of the partner lives outside the city, has a job there and the children live there, and the other partner goes down to them in the weekends. But this isn't an option for low-income people, who can barely afford to live in one place. Here you get a distortion where the low-income people having to live in relatively poor conditions or they may have to live

far from their workplace, meaning different problems such as commuting time and travel costs.

Q8 Housing appears as a very important part in the London Plan, in relation to the quality of life in world city London. Please assess the housing policy stated in the London Plan.

I think many of them would do okay, but experience so far in London tells me that different groups of immigrants have very different success rates. If you see the performance of children in the school system, the most outstanding students are Chinese immigrants. The next most successful are Indian immigrants, but the Bangladeshi immigrants, from the same subcontinent, do appalling. A great deal depends on the local cultural conditions.

The quality is crucial. But by driving the density up, it becomes more and more difficult to produce a good quality of life, because you'd lose open space, and the city would become family-unfriendly. And it would also require a very high level of good social behaviour, in order for people to live in high densities. In cities like Hong Kong and Shanghai, people to appear to live in very high densities, in appallingly high densities, but they do seem to survive.

Q9 What do you think about the expansion of the city and creating suburban towns, in order to solve the lack of housing in London?

I think that's a big mistake, and Ken Livingstone himself claims he's against that. He says he doesn't want to build them on open spaces. He just wants high-density

buildings in existing residential areas. But it isn't going to be that easy, because the total building stock doesn't change that fast. In fact, it changes very slowly, as we don't like knocking down houses. Some houses are very old and this gives them value, so you won't tear them down. This limits high-density housing to ex-industrial areas and port or dockland areas, which happen to have the land available for rebuilding.

Q10 The London Plan emphasises that diversity is what makes London they city, London, and emphasises the creation of diverse communities. What do you make of the related immigration policy?

I think it is the modern way, but it isn't just a sprawl. The way it's being done in Southern England, is very much like this, concentrated deconcentration. You deconcentrate on a broad scale, but you reconcentrate on a local scale, into a number of cities and towns, which themselves are reasonably compact. I think this is something we've done very well in this country, and something we could do on a larger scale, as we are beginning to do so. We could build up median size cities, between 100,000 and 400,000, outside London, and connect them with public transport.

I think it's a complex circular relationship. Successful cities, including successful global cities, are attractive to immigrants. Immigrants came to be young, active and mobile, and probably intelligent, as they wouldn't have made the journey here if they weren't so. Therefore, you do get an inflow of human capital, in economic terms. This has been a great asset to London, as it has been for other cities like New York. There are transitional problems, occurring during absorbing the immigrants. The problems are largely proportional to the degree of cultural adaptation the immigrants have to make. New York a century ago probably had the highest rate of immigration the world has ever known, until recently in London. London's immigration rate is said to be as high

as New York's a century ago. However, the immigration into New York around 1906 was mainly from Europe, and so the culture that came in was more homogeneous, than the culture being brought into London. This will mean longer time will be needed for cultural adaptation, and this may give rise to some difficulties. We now talk a lot about the Muslim population in London. I'm not so sure how large these adaptation problems are, but there are undoubtedly some among the young men, but most of the Muslim population in London and around Europe live perfectly well alongside the natives. The key to this is the integration of the second generation through the school system. That is the test. Normally, within one generation, the immigrants will be absorbed, not entirely, as they will retain their cultural identity, but they will be absorbed through the education system, into the mainstream. If that process fails, then I'd think there will be problems.

Q11 In his book 'the Clash of Civilizations', Samuel Huntington expresses negative views on relationships between communities with diverse cultural and racial background.

Huntington's thesis has been criticised by a lot of people, as it emphasises clashes between civilizations and that there are going to be world wars between these civilizations. I don't believe that people will necessarily accept that. But there are some difficulties in cultural adaptations that cannot be denied.

Q12 The immigration policy of a country seems to have a correlation with the openness of the society of the country. Richard Florida shortly but symbolically explains the openness of a society through the 'Bohemian Indicator', mentioning the 'creative class'. Please tell us your view on this.

The trouble is, that Florida's book was superficial, you know, he crunched the numbers. And it scored a large success by plainly telling you how to make a creative city. I think the whole process is much more complex than that. Also, the statistical correlations he made could work in either direction. But in order to understand what makes cities creative, I think you need much more of the sense of dynamics of how they happen over time, which is not what he really talked about.

Q13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time.

:: 영국도시건축연구소 UrbanPlasma(주)

1. 설립 : 2008년 8월 11일 영국정부(Companies House)에 공식 등록된 주식회사
2. 주소 : 영국 런던 소재
   63-71 Collier Street, Kings Cross/St Pancras, London, N1 9BE, United Kingdom.
3. 설립취지와 소개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현대 도시문명의 발상지가 된 영국은 짧은 도시화와 현대화를 이룬 우리나라의 도시환경에 유용한 경험과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소는 영국의 도시계획, 도시디자인, 그리고 건축분야의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시도 그리고 미래의 방향을 집중 연구·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으로 현실화하는 교두보의 역할을 하고자 설립되었다. 현재 UrbanPlasma는 영국의 도시계획, 도시디자인 그리고 건축분야의 연구와 디자인 그리고 전문 컨설팅과 자문을 하고 있다.